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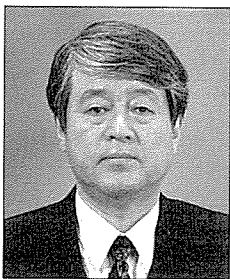
# 다시 태어나더라도 科學記者하겠다

나는 몇개월 전 30여년 근무해 온 신문사에서 한달 안에 나가달라는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2년반 남은 정년을 앞당겨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지난 30여년동안 과학기자로 참신한 기사를 발굴하고 보도해온 일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앞으로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쓰고 싶었던 글을 마음껏 써 볼 계획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실직한 40~60세 사이의 중·장년(中·壯年)세대를 명예퇴자·조퇴자(名退者·早退者) 또는 '젊은 노인'이라고 심심찮게 부르고 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및 인간공학적인 면에서 한창 일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먹은 사람은 무능력하다는 그릇된 사회통념 때문에 정년보다 훨씬 빨리 뒷전으로 물러나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와 재벌그룹 회장 및 많은 경영자들조차 이들 명예퇴자들이 수출 천억달러의 빛나는 금자탑을 쌓은 산업전사이자 수출역군이라는 사실을 벌써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崔先錄  
(과학평론가/전 서울신문 부국장)

한편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중에는 기술혁신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생산을 위해 선진국의 최신 기술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도입된 기술을 개량하고 토착화시키는 연구에 전념해 온 숨은 일꾼들이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다.

## 뜻밖의 名退 통보에 난감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언론계에 30여년동안 종사해 온 노기자의 한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날 아침 회사로부터 이제 나이를 먹어 별 불일없게 되었으니 한달 안에 잔소리말고 나가달라는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다.

이때의 허탈감과 분노·무기력감과 절망감은 나와 비슷한 통고를 받은 모든 명예퇴자나 조퇴자들도 함께 느꼈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명예퇴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퇴직 후의 생활설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안다. 필자 자신도 사규(社規)에 의해 만 60세가 되는 99년 여름까지 2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이 남아있기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명예퇴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해 온 모범사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의 언론이 한국 명예퇴직의 실상을 보도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이 보도는 '이제 한국의 경제는 경기침체의 깊은 늪 속

에 빠져 허덕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회복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상품의 수출을 담당했던 40~50대의 중·장년세대는 도도한 야심과 패기 넘치는 기백 및 황야를 달리는 야생마와 같은 불굴의 투지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외국 언론들은 최대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 ‘名退신드롬’ 건강관리 중요

그러나 지난 95년부터 기업체에 불기 시작한 명예퇴직제도의 확산으로 “이제 많은 근로자들은 경영진의 사원감원계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다가 풀죽고 고개숙인 허약한 남자로 변했다”는 폄하(貶下)의 말을 듣고 있다.

심지어는 ‘명퇴(名退)신드롬’이라는 낯설은 의학용어까지 등장했다. ‘명퇴신드롬’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는 우울증 증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불면증, 두통, 불안증, 건강염려증, 소화불량, 변비,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을 들 수 있다.

특히 사람에 따라 생활리듬의 급격한 변화로 생체리듬이 깨지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의 수치가 올라고 혈압·당뇨병·심장질환을 비롯 간장병·위장장애·관절염·천식 따위의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명퇴자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초기의 증상으로는 아무 이유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며 고함을 지르고 가슴이 답답하여 한숨을 자주 내설 뿐 아니라 인생여정의 패배자가 된 것같은 느낌을

을 갖는다.

지난 30여년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터득한 나의 생활철학은 ‘언제·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자신감을 갖게된 것이 무형의 큰 재산’이라 생각한다. 60년대 중반 ‘언론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신문사 수습기자 시험에 합격,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특종기사가 1면이나 사회면에 톱이나 박스 기사로 수없이 보도됐는가 하면 낙종기사도 여러번 있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기획기사는 △ 미국·일본·유럽지역의 현지 취재를 통한 재외한국인과학기술자의 활동 소개 △ 미국대학교에서 한국학연구소 설치와 강좌 개강의 중요성 강조 △ 멸종돼 가는 우리나라 동·식물의 실태 보도 △ 남미에 이 민간 한국동포의 생활상 소개 △ 남극 킹조지섬의 세종과학기지 심층보도 등을 들 수 있다.

### 노벨상 수상자 15명 인터뷰 보람

특히 과학기자로써 남다른 자부심을 갖는 것은 자연과학부문의 노벨상 수상자 15명을 인터뷰를 통해 심층 보도했다. 현재 생각나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로는 △ 1954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L.C. 펠링박사 △ 57년도 물리학상 수상자인 중국계 미국인 李政道·楊振寧박사 △ 62년도 물리학상 수상자 H.A. 베테박사(미국) △ 70년도 물리학상 수상자 D.A. 글레이저박사와 평화상 수상자인 농학자 N.E. 볼로그박사(미국) △ 73년도 물리학상 수상자 에사키·레오나(日本)박사를 손꼽을 수 있다.

한편 △ 76년도 물리학상 수상자인 중국계 미국인 S.C.팅(丁肇中)박사와 생리학상 수상자 B.S. 블럼버그박사 및 D.C. 카주세크박사(미국) △ 79년도 물리학상 수상자 A.살람박사(파키스탄) △ 81년 화학상 수상자 후쿠이·겐이치박사(일본) △ 88년 물리학상 수상자 L. 레더만박사(미국)를 들 수 있다.

인터뷰한 노벨수상자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과학자는 D.A. 글레이저박사와 N.E. 볼로그박사다.

글레이저박사는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정부·학계·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수한 영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며 기초과학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밀연구소(IWRI)소장 볼로그박사가 육종개량한 ‘기적의 밀씨’는 재래종보다 4배에 가까운 수확을 올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던 멕시코·인도·파키스탄·터키의 주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나는 지난 30여년동안 과학기자로 참신한 기사를 발굴하고 보도하여 온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금도 후회해 본 일이 없다.

이제 한가로운 시간도 많고 건강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모아 두었던 각종 자료를 정리해가면서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써볼 계획이다.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과학기자를 다시 하겠다는 마음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㉟